

한국 근대신문 기사제목의 형성과 발전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최창식**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석사과정)

채 백***

(부산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 근대신문의 기사제목이 형성, 정착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그 변화의 양상과 의미를 규명해보고자 하였다. 1890년대의 『독립신문』, 1900년대의 『대한매일신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동아일보』를 대상으로 이들 신문 기사제목 체제의 변화와 그 표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독립신문』은 창간 초기 『한성순보』와 마찬가지로 제목 없이 유목만으로 지면을 구분하다가 1898년 7월에 처음으로 제목을 사용하였다. 『대한매일신보』의 경우 1910년부터 제목을 별행 처리하여 본문과 확연히 구분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까지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본문의 서체와 제목의 서체를 구분하지 않았으며 제목 크기는 1단만 사용하여 기사의 중요도를 가늠하는 기능은 찾아볼 수 없었다. 1920년대의 『동아일보』는 다단과 다행, 본문과 확연히 구별되는 크기의 제목활자 등을 사용하며, 지면 레이아웃을 도입하는 등 오늘날의 신문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1930년대에 오면 제목의 크기가 더욱 커지면서 지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전에 비해 확연하게 늘어났다. 이는 1930년대 민간지의 선정주의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신문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중대해진 것으로 볼 수 있겠다.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는 편집진의 시각이 개입된 주관형 제목이 각각 44.4%, 28.3% 정도 나타나고 있는 데 반해 1920년대의 『동아일보』는 주관형이 4.2%로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당시 신문들에서도 객관 저널리즘이 정착되어가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제목,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신문 편집

* 이 논문은 부산대학교 자유과제 학술연구비(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citizens@chollian.net

*** bchae@pusan.ac.kr

1. 서론

1) 문제의 제기

1883년 10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가 창간된 이후 『독립신문』을 비롯한 여러 신문들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그 내용이나 형식 면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개화기 민중 계몽의 주요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던 초기 근대신문들은 늘어나는 언로(言路)로서의 사회적 필요와 요구에 발맞추어 각기 그 내용과 체제 면에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며 변화하였고, 이후 민간지의 상업적 성격이 더욱 강화되는 1930년대¹⁾에 이르면 신문들은 점점 더 오늘날과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기사의 주제와 내용, 편집뿐만 아니라 판형 및 활자 등 체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본 연구는 그 가운데 『독립신문』 이래로 나타난 한국 근대신문 기사제목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오늘날 일반적으로 접하는 신문 제목은 독자가 쉽게 전체적인 기사의 내용들을 일별하고 그 경중과 각자의 취향에 따라 읽을거리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러나 근대신문의 기사제목들은 그 형식과 표현이 오늘날의 그것과 사뭇 달라 독자들의 신문 읽기가 상이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기사들이 제목 없이 유목별 표제만을 단 채 나열되어 있던 『한성순보』와 초기의 『독립신문』으로부터 오늘날과 흡사한 형태의 제목을 갖추고 있는 1930년대의 민간지에 이르기까지의 신문에 나타난 제목을 살펴보고 그 변화의 모습을 밝히는 것은 각 시기별 신문 제목의 내용과 체제를 비교할 수 있게 해줄

1) 정진석(1990, 556~557쪽)에 따르면 1929년 대비 1939년의 독자 증가 비율은 『동아일보』가 50%, 『조선일보』가 150%로 두 신문 모두 상당한 독자 확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독자의 증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이들 신문이 1930년대 실시한 문자보급운동과 농촌계몽운동은 문자 해독층을 늘림으로써 신문 보급 확대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 보급의 확대는 두 신문이 독자 서비스와 속보 경쟁, 사옥 경쟁 등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러한 경쟁 시기를 민간지들의 상업적인 전성기라 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신문에 나타난 뉴스에 대한 관점과 표현 그리고 인식의 변화도 밝혀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와 같은 기사 제목의 변화가 갖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상우·류창하(1993, 171쪽)도 “근대적인 제목이 이룩될 때까지 제목의 발전은 신문의 발전과 거의 맥을 같이해온 것이다”라고 언급하면서 제목의 변화가 근대신문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신문이 도입되고 주요한 사회적 매스미디어로 정착해가는 시기에서 기사 내용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제목에 대한 연구도 신문 편집과 제작 전반에 관련한 다양한 부분을 아울러 고찰해볼 수 있는 중요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제목의 변화에 대한 분석은 당시 독자들의 신문 문화를 살펴보게 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즉 기사제목 변화에 대한 고찰은 우리 근대신문의 사회적 역할 및 그 본질적 기능과 더불어 신문 발전의 전반적인 과정을 가늠하게 해주는 유용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흡했던 우리 근대신문의 제목에 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제목의 기능과 종류

신문지면을 통해 독자에게 전달되는 기사는 구조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뉴스의 내용을 압축 요약하여 독자의 주목을 끄는 간판 역할을 하는 ‘제목’, 기사 본문의 머릿부분에 위치하여 기사의 전체 내용을 요약하거나 주의를 이끄는 ‘리드’ 그리고 ‘기사 본문’이 그것이다. 여기서는 먼저 제목에 관한 여러 정의들과 기능, 종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의 제목에 대한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최진우(1973, 131쪽)는 “사실에 근거를 둔 문장으로 단도직입으로 사건의 핵심을 잡아내는 독립된 문장표현”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신갑수·이주행·이석주(1990, 8쪽)는 “기사의 요약으로, 정확하고 주체적인 낱말을 써 이해하기 쉽게 쓴 완전한 진술

문장(文章)”으로 정의하고 있다.²⁾ 또한 김지용(1996, 179쪽)은 기사를 간결하게 압축하여 기사의 내용 전체를 함축함은 물론 독자의 주의를 끄는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한국편집기자협회(2001, 56쪽)는 제목에 대해 “하나의 요약된 기사이고 압축된 사건의 기술”이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정의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제목이 ‘기사 내용에 대한 압축’이며 또한 ‘요약된 진술’이라는 것이다. 즉 제목은 기사 내용을 함축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기사 본문의 2차적 가공물인 것이다. 하이드(Hyde, G. M., 1941, p.195)는 제목의 특성을 뉴스의 게시물, 광고, 요약, 특성제시, 함축된 표현, 정확하고 구체적인 단어, 용이한 이해성, 자체적으로 완전한 진술문 등으로 요약하고 있는데, 이는 제목 가공의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신문 제목의 기능에 대해서 한국편집기자회(1972)는 광고기능, 요약·압축기능, 암시기능, 뉴스등급화기능, 미화기능, 사시(社是)반영기능, 역기능 등 7가지로 나누고 있다. 신갑수 등(1990, 9쪽)은 표시기능, 압축기능, 감동적 기능, 품위제고기능, 심미적 기능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정태철(1995)은 보완적 기능, 주관적 기능, 요약적 기능, 선택적 기능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능 구분에서 또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요약’ 또는 ‘압축’으로 이것이 신문 제목의 기능에서 가장 기본적이며 중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의 제목의 정의와 결부시켜 논의해보면, 기사를 압축 및 요약하여 전달하는 것이 제목의 가장 본질적인 목적이자 기능이며 다른 제목의 기능들과 함께 신문의 발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강조되어 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신문 제목의 표현 종류에 대해서 김희진(1997, 29~84쪽)은 먼저 관점, 육하원칙, 단어선택 등을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히 제목 서술의 관점에 따라서 주관형과 객관형으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다. 객관형은 다시 본문 요약형, 주요내용 소개형, 결과 제시형, 각립형(各立型)으

2) 신갑수 등(1990)은 題目과 表題에 대해 전자는 구체적이고 후자는 상징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명확한 구분 없이 이를 혼용하여 제시하고 있다.

로 나뉘며 주관형은 기분 표출형, 호소·요청형, 관심 유도형, 문제 제기형으로 세분화된다. 신갑수 등(1990, 10~13쪽)도 기사 내용을 객관적으로 제시한 객관적 제목과 기사 내용의 중요 사항에 편집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가미한 주관적 제목 두 가지로 나누고 있으며, 주관적 제목은 기분형 제목, 호소형 제목, 관용어적 제목으로 나누고 있으며, 객관적 제목은 요약적 제목과 인용적 제목으로 다시 구분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편집기자협회(2001, 72~74쪽)도 표현에 따른 구분으로 객관 제목과 주관 제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객관 제목은 다시 단순 요약형과 인용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주관제목은 톤(tone) 제목, 캠페인형, 질문형, 조어형, 의인화형, 명령형 등으로 나누고 있다.

요약하자면 주관형은 편집자 또는 신문사의 의사나 감정이 직접 개입된 제목으로서 사실보다는 사건의 정서적 분위기를 전달하려 할 때 사용하는 제목이며(임영호, 2005, 231쪽), 객관형은 기사의 내용을 사실 위주로 압축 및 요약하여 객관적인 태도로 간결하게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신문제목의 표현을 구분하는 데 있어 주관형과 객관형의 구분이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주관형 제목이 편집자의 의도가 반영됨으로써 신문의 논조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주관형과 객관형 두 가지 모두 어떠한 형태로든 기자의 선택과 개입이 전제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이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신문제목의 외형적 형태를 한국 편집기자협회는 크게 10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배너 제목, 1행 제목, 다행 제목, 어깨 제목, 역어깨 제목, 기사 사이 제목, 대립형 제목, 가지 제목, 꺾기 제목, 평행사변형 제목 등이 그것이다(한국편집기자협회, 2001, 64~70쪽). 이 외에도 여러 변형적 제목들이 등장하나 제목의 형태는 대부분 이러한 분류에 포괄될 수 있다. 이러한 제목의 외형적 형태는 지면을 구성하는 기자의 의도에 따라 레이아웃 등의 ‘편집’ 과정을 거쳐 적절하게 선택되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제목의 내용 및 표현뿐만 아니라 외형적 형태에도 기자의 주관적인 개입이 일어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목에 대한 연구에서 제목의 외형적 형태와 표현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근대신문 기사 제목의 발전에 대한 기존의 논의

신문 기사에서 제목이 차지하는 비중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개론적 저술에서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근대신문 제목의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진우(1983, 34쪽)는 개화기 신문에서 표제 대응으로 ‘○’, ‘○’ 등을 각 기사의 머리에 두고 사용했음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기호들이 나타났다는 사실만을 간략하게 제시하고 있다. 최옥자(1973) 또한 레이아웃의 변천을 살펴며 타이포그라피와 관련해 개화기 및 그 후 민간지들의 제목에 나타난 특징들을 중심으로 간략히 일별하고 있으며 조은영(2003)은 1920년대 이래 민간 신문의 1면 변화 연구를 통해 1920년대와 1930년대 1면 제목의 외형적 형태만을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추광영과 강명구(1989)는 개화기 신문 뉴스의 사회적 성격을 분석한 논문에서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에서의 제목 사용을 고찰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논의는 당시 제목의 양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 결과만을 나열하거나 간략하게 변화 과정을 언급하고 있어 구체적인 변화의 모습과 배경을 결여하고 있는 것이 한계로 여겨진다. 이와 달리 채백(1995, 30~32쪽)은 『독립신문』 잡보 제목의 정착 과정과 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을 하였는데, 이를 통해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목을 작성하고자 하는 편집진의 의도가 있었음을 밝혔다. 이는 근대신문에 나타난 제목의 작성 배경을 구체적으로 고찰한 것으로 의의가 있다.

한편 차배근 등(2001)도 신문편집과 제작의 발달과 관련해 『한성순보』 이래 신문 판형과 제작에 관한 변천사를 정리하면서 신문제목의 변화에 관해서 논하고 있다. 그러나 기사 내용을 반영한 신문제목의 첫 등장 시기를 1920년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창간부터로 정의하면서 그 이전 시기를 ‘기사 항목’만 존재하는 시기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논설’, ‘잡보’ 등 기사 항목과 각 기사 내용을 반영한 기사 제목을 엄밀히 구분하여 고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독립신문』 등의 제목을 ‘문패형 제목’으로 정의하면서 당시 제목의 역할을 단순한 색인(索引)으로 보고 있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다.

이처럼 초기 근대신문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제목에 대한 연구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은 편이다. 이와 같은 현황을 고려할 때 근대신문에 나타난 제목의 변화과정을 고찰하고 그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기사 내용 자체에 대한 연구에 못지않게 한국 근대신문의 발달과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3) 연구 문제 및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개화기와 일제 강점기를 대상으로 각 시기별 대표적인 근대신문에서 제목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제목의 내용 및 형태의 변화 과정을 먼저 고찰하고 나아가 변화의 배경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 주제를 바탕으로 두 가지의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개화기 이후 대표적인 근대신문들에서 제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신문에 나타난 제목의 외형적 형태 변화를 비교해보고 또한 표현의 방식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분석의 대상으로는 10년을 단위로 하여 1890년대 『독립신문』, 1900년대 『대한매일신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동아일보』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는 이들 신문이 해당 시기의 대표적인 신문으로서 일정 기간 꾸준히 발행되어 신문 간의 변화상뿐만 아니라 신문 내에서의 시기별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신문들은 언론사적인 면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신문들로서 이후의 신문들에 이념적 및 실제적 차원에서 많은 영향을 주었던 신문들이기에 초창기 편집의 변화상을 논하는 데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분석 대상은 각 신문들의 잡보 또는 사회면에 게재된 기사의 제목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독립신문』에서 1930년대 『동아일보』에 이르기까지 유사한 성격으로 계속 유지되어온 주요한 기사 유목으로서 서로 비교 및 고찰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한 언론으로서 신문의 핵심적 기능이 정보 전달임을 감안할 때 다양한 소식 전달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 기사가 신문들의 저널리즘적 성격을 잘 나타내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기사의 소재만큼 다양한 제목 표현 등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제목 표현에 대한 분석 대상으로는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전체 발행 기간의 중간 시기를 선택하였으며, 『동아일보』는 10년 단위의 시기별 분석을 위해 1920년대와 1930년대의 중간 시기를 선택하였다. 구체적인 각 시기의 분석대상은 아래 <표 1>과 같다.

『독립신문』만 다른 신문과 달리 10월에 발행된 것을 분석한 것은 『독립신

<표 1> 신문별 잡보 또는 사회기사 제목분석 대상지면

신문명	일자	지면	비고
독립신문	1898년 10월 1일	2, 3, 4면	
	1898년 10월 3일	2, 3, 4면	
	1898년 10월 4일	3, 4면	
	1898년 10월 5일	2, 3, 4면	
	1898년 10월 6일	3, 4면	
대한매일신보	1907년 7월 24일	2, 3면	순환글판
	1907년 7월 25일	2, 3면	
	1907년 7월 26일	2, 3면	
	1907년 7월 27일	2, 3면	
	1907년 7월 28일	2, 3면	
동아일보	1925년 7월 24일	2면	
	1925년 7월 25일	2면	
	1925년 7월 26일	2면	
	1925년 7월 27일	2면	체육관련 기사 제외
	1925년 7월 28일	2면	체육관련 기사 제외
동아일보	1935년 7월 24일	2, 3면	
	1935년 7월 25일	2면	체육관련 기사 제외
	1935년 7월 26일	2, 3면	체육관련 기사, 사고(社告) 제외
	1935년 7월 27일	2, 3면	체육, 문화관련 기사 제외
	1935년 7월 28일	2면	체육관련 기사 제외

문』에서 제목이 1898년 7월 2일자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제목이 나타난 직후보다는 제목 사용이 어느 정도 안정된 시기를 살펴보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동아일보』의 경우 제목의 체제 분석을 위해 1920년대와 1930년대 모두 사회기사가 주로 위치하였던 조간 2면만을 중심으로 하였다. 그러나 제목의 표현방식 분석의 경우 3면으로 넘어간 사회기사도 모두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 경우 2면 혹은 3면에 위치한 문화 혹은 체육 등의 기사는 분석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제목 분석의 유목으로는 체제 부문에서 글자 크기와 단수 및 지수, 지면에서의 공간 점유 비율 등이다. 글자 크기는 관련 문헌 등을 통해 제목에 사용된 활자를 조사한 뒤 한국편집기자회(1972)의 조건표를 사용하여 실제 크기로 확대한 지면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지면 공간 측정은 연구 대상 지면을 스캔,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인 포토샵에서 실물 크기로 맞춘 뒤 각각의 기사, 제목, 사진, 광고 등을 하나씩 오려내 가로와 세로의 크기를 측정, 합산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내용 부문에서는 사용된 단어 및 표현 방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표현 방식에 있어서는 주관형과 객관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이유는 전술한 대로 이러한 구분이 제목 서술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구분의 기준으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기사내용에 대해 주관적인 개입 없이 기사 본문을 나열하거나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가 혹은 편집자가 본문의 내용을 압축 또는 재해석하여 감정이나 생각 등을 새로운 표현으로 나타내는가의 구분을 통해 각 시기 신문들의 편집에 나타난 저널리즘적 성격을 고찰해보기 위해서이다. 두 종류의 제목 구분은 앞서의 제목 구분의 기준을 따른 감정 표출, 호소·요청, 문제 제기, 질문, 조어, 의인화, 명령 등의 표현 형태 그리고 기사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표현의 경우는 주관형 제목으로 분류하였으며 기사 내용의 일부를 그대로 다시 나열하는 경우는 객관형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제목이 여러 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주제목과 부제목을 모두 표현방식의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언론학을 전공하는 대학원생 2명에게 분석 대상의 약 10.2%인 40건의 제목을 제공한 후 홀스티 공식(Holsti's formula)을 이용해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 0.954의 수치를 얻었다.

두 번째로는 앞서의 신문들을 중심으로 각 시기별 근대신문 제목의 변화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다. 앞서의 분석에서 나타난 매체별 그리고 시기별 제목의 특징을 분석하고 변화가 있었다면 그러한 변화를 수반한 내외의 배경을 관련 문헌자료의 분석 등을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 자료의 제한으로 인해 변화의 동인을 직접적으로 규명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신문 제목 변화에 영향을 미친 당시의 편집, 제작 여건 및 환경 등 간접적인 자료들을 통해 원인 규명을 시도해볼 수 있을 것이다.

2. 한국 근대신문의 기사 제목

1) 『독립신문』의 기사 제목

1896년 4월 7일 창간된 『독립신문』은 가로 23cm×세로 35cm의 지면 크기에 가로 3단의 체제로 편집되었다. 창간 초기 『독립신문』의 지면 구성은 일반적으로 1면에서부터 4면까지 ‘논설’과 ‘관보’, ‘잡보’와 ‘광고’ 등이 순차적으로 나열되었으며, 각 유목의 게재 위치와 분량은 면별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날의 기사량에 따라 유동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면별 편집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채백, 1995, 11쪽).

최초의 근대신문인 『한성순보』, 그리고 이후 발간된 『한성주보』와 마찬가지로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창간 이후 그해 5월 19일자 제19호까지 ‘광고’, ‘물가’, ‘논설’, ‘관보’, ‘잡보’ 등의 기사들의 유목만을 표시했다. 여러 기사들이 섞여 있는 잡보의 경우, 제목이 나타나기 이전에는 기사들이 줄 바꿈을 통한 문단의 구분만으로 계속 이어졌는데, 한 기사 내에서도 국왕 등이 기사에 언급되는 경우 줄 바꿈을 하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기사와 기사를 구별하는 것은 객관적인 형식과 기준이 아닌 독자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임근수(1984, 238쪽)는 1883년 『한성순보』 창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전근

대적 커뮤니케이션 시기로, 그 이후를 근대적 커뮤니케이션 시기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제목 없이 나열된 기사 형식은 전근대적인 구어 커뮤니케이션 양식이 여전히 근대적 커뮤니케이션 매체인 신문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제목은 인쇄문화가 보급, 정착되면서 나타난 양식으로, 글을 소리 내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것이 보편적이던 당시에는 필요한 요소가 아니었을 것이다. 김민환(1996, 103~104쪽)이 『한성순보』 이후 근대 사회에 나타난 언론 현상의 변화로 사회 공론 형성층이 민중에게까지 확대된 것을 들고 있는 것에 비추어볼 때, 신문이라는 근대적 커뮤니케이션 형식이 민중들에게 널리 전달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익숙한 구두 커뮤니케이션의 형식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매체가 등장하면 초창기에는 기존 매체의 포맷에 의존하며 새로운 매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포맷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야 나타난다는 윌리엄스(Williams, R., 1975/1996, pp.272~273)의 지적처럼 이러한 구두 커뮤니케이션 양식은 그 당시 ‘신문’이라는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자들의 적응과 수용을 위해 필연적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독립신문』은 1896년 5월 21일자에 와서 처음으로 ‘○’ 약물을 사용하여 각 기사의 시작 부분을 구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러한 약물은 제목의 기능을 하였다기보다는 단순히 각 기사의 머리를 표시한 것일 뿐이었다. 하지만 기사와 기사를 기호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구분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발전이라 평가해야 할 것이다.

1898년 7월 2일자인 제77호에 오면 처음으로 제목이 나타나는데, 그 형태는 기존의 ‘○’ 약물 뒤에 제목을 넣고 ‘)’로 닫은 다음에 기사 본문을 시작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한동안 유지되다가 1899년 10월 9일자 제231호에 와서는 기존의 ‘○’ 외에 ‘●’를 병행 사용하였으며 ‘)’ 대신에 ‘, ’을 사용하다 차츰 ‘○’는 자취를 감추고 폐간에 즈음해서는 ‘●’만 쓰이게 된다. 『독립신문』에는 지면 전체의 활자가 두 가지 크기로만 나타나는데, 큰 글씨는 유목 및 광고에 사용되었으며 본문용의 4호 활자가 제목용으로도 사용되어 글씨 크기를 통한 제목 부각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본문과 마찬가지로 제목에서 띄어쓰기가

<표 2> 『독립신문』 잡보의 제목 유형

제목유형	건수	비율	평균 글자 수	표준편차
객관형	15	55.6%	4.53	1.767
주관형	12	44.4%	4.17	0.389
전체	27	100.0%	4.37	1.334

나타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³⁾

연구 대상기간의 『독립신문』에 나타난 잡보의 전체 제목을 객관형과 주관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는 위의 <표 2>와 같다.

『독립신문』의 잡보 제목 유형을 분석한 결과, 객관형 제목이 주관형 제목보다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기사의 첫머리나 내용을 그대로 뽑아낸 객관형 제목은 ‘상회 상쇼’, ‘통상회’(이상 1898년 10월 1일자), ‘경상 어스 힝적’(1898년 10월 3일자), ‘협회 기회’(1898년 10월 6일자) 등 총 15건으로 나타났다. 편집진의 시각으로 기사 내용을 해석·압축해 새로운 표현으로 나타낸 주관형 제목은 누명을 쓴 하씨 형제의 사연을 묘사한 ‘하씨 억울’, 러시아 공사관과의 의견 대립을 압축한 ‘외교 왕복’(이상 1898년 10월 1일자), 농상공부 대신의 비굴함을 꾸짖는 ‘대감 락명’, 서양인이 어린이들을 위해 책을 보내준 사실에 대한 인사를 제목으로 나타낸 ‘감샤 훈일’(이상 1898년 10월 3일자) 등 12건으로 나타났다. 주관형 제목에서 기사 내용의 압축은 ‘억울’과 같이 우리말로 나타나거나 ‘락명(落名)’, ‘환임(還臨)’과 같이 한문을 축약한 한글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부록 <제목 목록 1> 참고).

제목의 길이를 살펴보면 예외적으로 ‘경상 어스 힝적 저호 연속’(1898년 10월 4일자)과 같이 10자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평균 4.37자 내외였으며 표준편차는 1.334로 나타났다. 모든 제목들은 공통적으로 가능한 한 4자 내외

3) 『독립신문』 창간호 ‘논설’에서는 “모두 언문으로 쓰는 것은 남녀 상하귀천이 모두 보게 함이요, 또 귀절을 떼어 쓰는 것은 알아보기 쉽도록 함이라”라고 띄어쓰기를 할 것임을 알리고 있다.

로 압축되는 경향이 보이는데, 이것은 한문체 표현이 한글신문에서도 그대로 쓰이는 가운데 “가능하면 간결한 제목에 내용을 집약하여 독자들에게 명료하게 전달하려는 편집진의 노력으로 해석”(채백, 1995, 32쪽)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당시의 신문은 오늘날의 타블로이드 판형보다 약간 작은 크기⁴⁾의 4면 체제로, 담긴 내용이 많지 않은데다 열독의 형태가 신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경우가 많아 제목이 기사의 경중을 의미하거나 기사의 가치를 차등화하는 기능보다 단순히 기사 머리에 표식을 하여 구분해주고 내용을 요약해주는 기능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대한매일신보』의 기사 제목

1904년 7월 18일 창간된 『대한매일신보』의 지면은 가로 27cm×세로 40cm 크기로서 『독립신문』보다 약 1.34배 커졌으나 초창기 기사단의 구성은 신문을 가로로 눕힌 상태에서 독립신문보다 1단 늘어난 4단(1단 41행, 1행 13자 내외)이었다. 이후 1905년 8월 11일자부터 세로로 세워진 형태의 6단 체제로 늘어났고 1907년 4월 7일자부터는 판형이 가로 30.5cm×세로 46cm로 다소 커졌다. 이후 1910년 1월 5일자 제757호에 오면 단수가 7단(1단 44행, 1행 13자 내외)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채백(2004, 272쪽)의 연구에 의하면 『대한매일신보』의 잡보는 “호당 평균 기사건수는 1908년까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다가 1909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1910년에 평균 기사건수가 다시 증가하였다”고 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대한매일신보』의 이런 체제상의 변화와 맞물려 기사의 양도 비례해서 증가했고 그동안 크게 변화하지 않던 제목이 기사 건수가 급증했던 1910년에 와서 그 형식에서 변화를 보인다는 점이다.

먼저 『대한매일신보』 잡보의 제목 형식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독립신문』의 그것과 유사하게 ‘○’약물로 제목의 머리를 장식하지만 ‘)나 ‘, ’를 사용하지 않고 한 칸 띄운 다음 바로 기사본문을 시작하는 점이 다르다. 그리고

4) 초기 『독립신문』의 크기는 가로 23cm×세로 35cm였으나 1899년 9월부터 판형을 국배판(菊倍版) 크기인 가로 22.5cm×세로 30.7cm로 변경한다(차배근 외, 2001, 264쪽).

『대한매일신보』 창간 이후 모든 잡보의 제목은 4자로 이루어져오다 1904년 8월 27일야 처음으로 3자 제목과 5자 제목이 나타나면서 다양한 글자 수의 제목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1907년 5월 23일 순한글판 『대한매일신보』 발행부터 ‘○’ 대신 ‘●’를 사용하게 되는 것 외에 큰 변화가 보이지 않다가 1910년 1월 1일자부터 제목 약물 앞을 2칸 띄우고 제목과 본문을 별행처리해 본문과 확실히 차별화하기 시작하였다. 그 외에는 4호 크기의 1줄 제목으로 서체 구별이 따로 없다는 점에서 『독립신문』과 유사하나 1909년 말부터 기사의 건수가 늘어나면서 기사들의 분리를 위한 제목의 역할이 중요해져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고 보인다. 또한 특이한 점은 『독립신문』에서는 제목과 기사 본문이 모두 띄어쓰기가 되었던 반면에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초기에 제목과 본문 모두 띄어쓰기가 이루어지지 않다가 순한글판 발행 이후 기사에서만 띄어쓰기가 나타났다는 점이다.

<표 3> 『대한매일신보』 잡보의 제목유형

제목유형	건 수	비율	평균 글자 수	표준편차
객관형	107	77.0%	5.07	1.143
주관형	32	23.0%	6.09	1.399
전체	139	100.0%	5.30	1.278

<표 3>에 나타난 『대한매일신보』의 제목 유형을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상대적인 비율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독립신문』과 마찬가지로 주관형 제목이 꾸준히 나타난다는 점이다. 평균 5.07자 내외로 단순하게 사실을 적시한 객관형 제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관(官)의 동정으로, 34.6%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집진의 시각이 개입된 주관형 제목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주제는 사건보도나 정치 관련 기사로 53.1%의 비율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1907년 7월 24일자 잡보 가운데 관보를 가지고 가던 사람을 연행해 검문한 순사를 힐난하는 ‘관보도 모르나’, 갑자기 울려 퍼진 총성에 일본인이 쓰러지자 한 서민이 놀라서 도망간 이야기를

답은 ‘한씨가 혼났네’, 그리고 한일 협약을 자랑스럽게 떠벌리고 다니는 대신들을 비난하는 1907년 7월 27일자 ‘얼굴이뜨겁지아닌가’ 등의 제목이 사건보도 및 정치 관련 기사의 주관형 제목이다(부록 <제목 목록 2> 참고). 글자 자수의 측면에서는 <표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객관형 제목의 경우 5자 내외의 간결한 표현이 많이 나타나며 주관형 제목의 경우 6~7자 내외의 상대적으로 긴 제목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독립신문』에 비해 제목의 길이가 길어진 것이다.

3) 1920년대 『동아일보』의 기사 제목

『동아일보』의 창간 당시 체제를 살펴보면 판형은 오늘날과 같은 배대판(培大版)으로 전체 지면은 4면이었으며 각 면은 12단 체제로 편집되었다.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가 “1면에서 넘치면 2면으로, 2면에서 넘치면 3면으로 흘렀다”(한국편집기자회, 1972, 13쪽)고 한다면 『동아일보』는 명확히 지켜지지 않기는 하지만 “제1면은 논설면(論說面), 제2면은 정치·외신면(政治·外信面), 제3면은 사회·체육면(社會·體育面), 제4면은 학예·지방면(學藝·地方面)”(동아일보, 1975, 118쪽)과 같은 체제로 초기적 면별 편집 개념을 도입하였다.

『대한매일신보』까지는 제목이 1단 크기로만 나타났는데, 『동아일보』에서는 창간부터 2단 이상의 제목이 나타난다. 이는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1911년 8월 31일자에서 2단 제목을 처음 사용하면서⁵⁾ 이러한 다단 제목이 일반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겠다. 1920년대의 제목 형식을 살펴보면 대부분 1~2단 크기 정도의 제목이며, 사회면에서는 4단 크기의 제목도 간헐적으로 등장한다. 단신기사의 경우에는 1단 2~3행 제목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며 톱기사나 그에 버금가는 비중 있는 기사의 경우 2단 제목에 2~3행으로 받치는

5) 『매일신보』 1911년 11월 1일자에서부터 기사 제목은 본문과 차별화 되어 큰 활자로 나타나며 두 줄 제목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또한 1911년 8월 31일자부터 2단 제목이 등장하면서 글자 수 또한 늘어나게 되어 기사 내용을 상세히 부연하는 서술형 제목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목(부제목)의 형태를 보인다. 제목의 줄 수에 관해 차배근 등(2001, 299쪽)은 1920년대의 기사 제목이 거의 2단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사의 경중은 제목의 행수로 가늠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한글 사용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면 제목들은 거의 한자로 이루어져 있고 한글은 조사나 외래어의 표기 정도로만 쓰인다. 또한 사회 기사들의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대부분의 주제목은 한자로 되어 있는 반면 주제목을 부연하는 부제목은 한글로 되어 있다.⁶⁾ 분석 대상 지면에 나타난 주제목 서체의 크기는 1~2호 크기의 일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지면 전체가 세로쓰기로 편집되고 있는 가운데 ‘麗日下에 除幕戰’(1925년 7월 27일자) 등과 같이 가로쓰기로 된 제목이 극히 일부에서 등장하기도 한다.

<표 4> 1920년대 『동아일보』 사회기사의 제목유형

제목유형	건 수	비율	평균 글자 수	표준편차
객관형	114	96.6%	7.88	3.118
주관형	4	3.4%	11.50	6.454
전체	118	100.0%	8.00	3.300

『동아일보』의 사회 기사 제목의 유형을 보면 주제목은 축약된 한자로 기사의 주제를 부각하거나 기사 전체를 포괄하고 있고 부제목을 통해 이를 부연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제목의 경우에는 대부분 객관형의 건조한 어조를 보이고 있는데, 인명사고 보도의 경우에도 1925년 7월 24일자의 ‘婦女五名溺死’, ‘重傷者生命危險’, 1925년 7월 25일자의 ‘鐵道乘客溺死’, ‘溺死者四名發見’ 등 감정이 배제된 담담한 제목을 붙이고 있다.

6) 이러한 부연 제목에 대해 이재경 외의 연구(2001)는 이를 피라미드형 신문 기사의 앞머리를 이끄는 ‘리드’로 보고 있는데, 한국편집기자회(1972, 181쪽)는 부제목에 대해 “주제가 표현한 내용을 더 상세히 부연하기도 하고 또는 새로운 사실을 말하기도 한다”는 내용상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후자의 기준을 따르면 이 시기의 『동아일보』에서 나타나는 반치는 제목을 부제목으로 보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편집진의 생각이나 주관이 개입된 주관형 제목은 조사대상 가운데 네 건만 발견되었다. 1925년 7월 27일자를 보면 해마다 수재를 맞은 학교에 관한 기사를 보도하면서 ‘비운’이란 표현을 통해 안타까운 시각으로 ‘光新校의 悲運’이라고 제목을 달았으며, 1925년 7월 28일자에는 경찰이 곳곳의 구제소를 무단으로 해산했음을 ‘무도한 압박’으로 해석한 ‘救濟所를 또 解散/…처처에 나타나는 무도한 압박’이라는 제목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같은 날짜 지면에 사람을 무참히 때려 살해한 범인에게 6년만 구형한 검사를 힐난하는 ‘檢事求刑 畢六年’ 등이 주관형 제목을 사용한 예이다(부록 <제목 목록 3> 참고). 이는 1920년대 초반부터 많은 잡지들이 창간되면서 일어나기 시작한 ‘잡지는 의견 중심, 신문은 사실중심’이라는 사실과 가치의 분리 사조 속에서 객관적 저널리즘이 신문에 투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강준만, 2000, 208~209쪽). 또한 제목에 가급적이면 주관을 배제시키려는 경향은 치안유지법 등을 동원한 일제의 감시하에서 “검열에서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는… 자구적 노력”(정대철, 1996, 446쪽)이 제목에서도 나타난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시기에 나타난 제목 표현의 변화는 저널리즘과 시대 상황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풀이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기사의 전체 제목 글자 수는 크게 늘어났는데, 예를 들어 1925년 7월 27일자 2면의 경우에는 25개의 기사 가운데 2단 이상 기사의 경우 어깨제목이 평균 7.85자, 주제목 평균 7.1자, 부제목은 평균 26.2자로 평균 41.1자 내외의 제목 글자 수를 보이고 있으며 1단 기사의 경우에도 한 문장이 여러 행으로 나누어진 경우가 많아 평균 14.7자⁷⁾의 제목으로 나타났다. 이는 커진 지면의 기사들을 일별하기 쉽게 제목을 상세하게 붙이는 경향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제목 내용에 있어 특이할 만한 점은 각 기사의 모든 제목을 차례대로 읽으면 기사의 대략적 내용을 거의 파악할 수 있는 것인데, 1925년 7월 24일자의 ‘避亂民八十名收容한/東幕禮拜堂天井崩落/소녀한명은즉사하고두명은중상/昨曉

7) 위의 <표 4>는 모든 기사의 주제목 평균이며 여기 제시된 14.7자는 1단 기사의 주제목과 부제목을 합하여 측정된 것임.

東幕水災民收容所의慘死’ 그리고 1925년 7월 28일자의 ‘密陽警察當局/救濟所를 또解散/도청명령이라고해산을식혀/처처에나타나는무도한압박’ 등 제목에 거의 대부분의 기사 내용을 요약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부제목이 두 줄 이상이 될 경우에는 반드시 글자 수를 맞추고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 기사 내용을 요약하고 제목의 글자 수를 맞추어 제목을 만들기 위한 편집진의 노력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는 제목이 신문 편집에 있어서 비중 있는 요소가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시기 『동아일보』의 제목에서도 『대한매일신보』나 『매일신보』에서와 마찬가지로 띄어쓰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주제목의 경우 거의 한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쓰기에서와 마찬가지로 띄어쓰기의 필요성이 특별히 없었으며, 한글로 된 부제목에서도 띄어쓰기를 하지 않은 것은 글자 수를 쉽게 맞추고 줄이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반각 크기로 몇 군데 띄어쓰기를 할 경우 다음 행에서도 띄어쓰기를 하면서 제목 길이를 똑같이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제목 단어 선택과 조판과정에서의 어려움이 띄어쓰기를 하지 않게 한 것으로 생각된다.

4) 1930년대 『동아일보』의 제목

이 시기 『동아일보』는 체제 면에서 지면의 전체 단수가 13단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없다. 하지만 제목을 비롯한 편집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띄는 점은 초호(初號) 크기의 제목이 등장하였고 또한 제목들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졌다는 점이다. 반면 글자 수는 이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다음의 <표 5>과 <표 6>은 1920년대와 1930년대 조사대상 지면에서 구성 요소들의 점유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사회기사를 주로 다룬 2면 전체를 기사, 제목, 사진, 광고 및 기타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크기를 측정하여 전체 지면 대비 비율로 환산하였다.

<표 5> 1925년 7월 24일자~1925년 7월 28일자 『동아일보』 2면의 지면구성 비율

	전체지면에서의 비율	광고 및 기타 제외	광고와 사진, 기타 제외
기사	54.53%	59.76%	70.82%
제목	22.47%	24.62%	29.18%
사진	14.25%	15.62%	-
광고	8.33%	-	-
기타 ⁸⁾	0.42%	-	-

<표 6> 1935년 7월 24일자~1935년 7월 28일자 『동아일보』 2면의 지면구성 비율

	전체 지면에서의 비율	광고 및 기타 제외	광고와 사진 등 제외
기사	37.02%	47.39%	55.98%
제목	29.11%	37.27%	44.02%
사진	11.99%	15.35%	-
광고	21.52%	-	-
기타	0.37%	-	-

위의 표에서 나타나듯 1930년대의 『동아일보』에서는 제목이 차지하는 공간이 기사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증가했으며 제목이 차지하는 공간이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사의 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1925년 7월 24일자~7월 28일자 2면의 평균기사 건수가 26.8개였던 반면, 1935년 7월 24일~7월 28일자 2면의 경우 평균 기사수가 21.4개로 나타났다.⁹⁾

제목의 형태를 살펴보면, 1935년 7월 24일자의 ‘獨浪과苦鬪·本社救護班徹夜’와 같이 최고 5단 크기의 제목까지 등장하고, 가로세로 혼용의 제목도 종종 나타난다. 제목의 체제는 기본 두 줄에 1935년 7월 27일자의 ‘暴雨—過後드러

8) 기타로 분류된 구성요소는 간략한 삽화, 컷, ‘알림’ 형태의 박은 박스물 등이다.

9) 조사대상 기간 중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의 잠보기사 평균 건수는 각각 5.4건과 27.8건으로 나타났다.

<표 7> 1930년대 『동아일보』 사회기사의 제목유형

제목유형	건 수	비율	평균 글자 수	표준편차
객관형	93	84.5%	10.60	4.787
주관형	17	15.5%	16.94	6.189
전체	110	100.0%	11.58	5.501

난慘跡/堤防五個所破壞/侵水十萬餘坪/二十二日 이후의 폭우로 피해/載寧安寧水組區內’ 등 5줄짜리 제목까지 등장하며 두 가지 이상의 서체 혼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1920년대의 신문과는 달리 줄맞춤을 한 제목은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외줄 제목을 제외한 모든 기사에서 계단식 제목배치를 하고 있다. 줄맞춤을 하지 않게 되면서 일부 한글 제목에서는 띄어쓰기가 다시 나타나고 있다. 제목을 장식하는 약물의 빈번한 사용도 눈에 띄는데, 태두리나 도형, 컷 등도 많이 나타난다. 그리고 이전에 거의 한글로 되어 있던 부제목도 상당부분 한자로 대체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부제목의 글자 크기도 본문에 버금가는 크기로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제목의 표현에 있어서는 객관형 제목이 여전히 많은 가운데 주관형 제목이 늘어난 경향을 보이는데, 특히 인명사고 보도에 있어 편집진의 주관 개입이 두드러진다. 1935년 7월 26일자의 경우 익사 위기에 빠진 사람을 구출하려다 사고를 당한 이들에 대해 안타까운 감정을 담은 ‘주검의 直前に/發見되는 人間愛’, ‘激浪에싸인少年/救出하다溺死’, ‘江中の幼兒건지다/목숨바친老翁’, 그리고 가족간의 살인을 탄식하는 ‘兄弟가合力하여/四從叔打殺/아이들쌈에 어른이 죽어/犯人은報恩囑에被捉’과 같은 감정이 드러난 제목이 나타나고 있다(부록 <제목 목록 4> 참고).

3. 근대신문에 나타난 제목 변화의 양상과 그 배경

지금까지 『독립신문』,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에 나타난 제목의 양상을 분석해보았다. 그것을 바탕으로 여기서는 제목 형태 그리고 제목 내용 및 표현으로 나누어 각 신문 사이에 나타난 변화를 정리해보고 그러한 변화의 배경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 제목 형태

기사별 제목이 없이 유목만을 제시하던 초창기 『독립신문』은 1896년 5월 21일자부터 ‘○’ 약물로 각 기사의 시작 부분을 구분하다 1898년 7월 2일자인 제77호에서 처음으로 제목을 쓰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제목의 형태는 『대한매일신보』로 이어지는데,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띄어쓰기와 제목 글자의 수를 제외하고는 형태 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제목을 본문과 같은 4호 활자로 사용한 것이나 기사의 구분 및 요약이 제목의 주요한 기능으로 여겨진다는 점에서 그러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신문을 거치면서 제목이 신문 편집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나아가 지면을 나누고 기사의 경중을 가늠하는 현대적인 제목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1910년까지의 이 시기를 인쇄문화의 정착과정이라는 맥락에서 근대신문의 제목이 태동하여 정착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대한매일신보』가 광고란 등에서 2단 제목을 사용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단 기사 제목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의문이다. 『대한매일신보』 폐간 2개월여 만인 1910년 11월 1일자 『매일신보』 잡보 제목에서부터는 활자의 크기가 본문과 확연히 커지고 두 줄 제목 또한 등장하며 이듬해 1911년 8월 31일자에 이르러 2단 제목¹⁰⁾도 나타난 것이다.

10) 초기 『매일신보』의 두 줄 제목은 하나의 문장이 두 줄로 꺾여 표기되는 단순한 형태였으나 2단 제목이 나타나면서 긴 제목 문장도 줄 바꿈 없이 표기되었다.

이상우·류창하(1993)에 따르면 미국 신문의 경우에는 19세기 말까지 조판 기술의 문제로 다단(多段)제목이 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데,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는 조판 기술의 문제보다 신문 운영의 재정적 상황이 주요한 이유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조판에 주로 쓰이는 활자가 한자와 한글을 포함 6천 자족(字族) 내외에 이르기 때문에(한국편집기자회, 1972, 44쪽) 두 가지 크기의 서체만 운용하더라도 면수와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1만 2천여 종류 내외의 활자가 필요하고 고딕과 명조 두 종류의 서체를 운용한다면 2만 4천여 개의 활자가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다단 편집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활자와 추가적인 문선인력이 필요했을 것이다. 정진석(1990, 198~214쪽, 234~241쪽)에 따르면 『국민신보』, 『대한신보』, 『한성신보』, 『대동일보』 등 러일전쟁 이후 창간된 한국어 신문 가운데 상당수는 구독료 미납, 급료체불 등으로 폐간되는 등 경제적인 문제가 심각하였으며 그나마 가장 많은 부수를 발행하던 『대한매일신보』의 경우에도 국한문, 순한글, 영문판 등 세 가지 판을 내기 위해 인력에 많은 비용을 쏟았다고 한다. 그럼에도 당시 규모가 가장 컸던 『대한매일신보』의 인원이 10~20명 내외에 지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1910년 이전의 민간지들에게 이러한 활자의 도입과 운용은 경제적으로 큰 압박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1910년 이전 신문 편집에 있어서 다단 편집의 개념은 존재하였지만 지면의 크기가 크지 않았고 단수 또한 많지 않아 제목으로 단을 가로지르고 기사를 배치하는 등의 지면 구성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다른 크기의 제목에 대한 필요성은 그다지 없었을 것이다.

1920년대의 『동아일보』는 1900년대의 『대한매일신보』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두드러진 차이점을 지적한다면, 『대한매일신보』가 론설, 관보초록, 외보, 잡보, 시사평론, 쇼설, 광고 등 유목에 따른 순차적 편집을 하고 있어 기사의 분리와 내용요약이 제목의 주목적이었다면 1920년대의 『동아일보』는 그간의 다양해진 편집 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지면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사를 부각시키고 요약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는 나아가 외형적으로 제목이 길어지는 경향과 강한 활자로 압축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시기 신문 제목은 읽기 알맞은 크기로 단을 자르고, 비중을 표현하며 지역판 편집 등¹¹⁾에 대비해 편집을 빠르고 기능적으로 이루어지게끔 하는 수단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해야 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신문 사이의 변화 배경과 관련해 차배근 등(2000, 269쪽)은 오랜 기간 민간신문이 발행되지 않음으로 인해 새로운 신문제작의 노하우를 일본신문에서 차용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처럼 1910년대에도 꾸준히 발행되어 오던 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가 1920년대 민간지 편집 변화의 참고가 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표 8> 조사대상 『동아일보』 2면의 제목 크기와 단수

		1920년대	1930년대
전체 기사 건수		139(100.0%)	111(100.0%)
2단 제목 이상의 기사 건수		63(45.3%)	52(46.8%)
제목 크기	8배	0(0.0%)	13(11.7%)
	특호	15(10.8%)	17(15.3%)
주제목 평균 단수		1.54단	1.84단

(주제목 평균 단수 $t=-2.578$, $df=182.6$, $p=0.011$)

1930년대 『동아일보』의 제목 형태에서 가장 특징적인 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목의 글자 크기와 공간 점유가 두드러지게 커졌다는 점이다. <표 8>을 통해 제목 글자의 크기를 비교해보면, 먼저 1925년 7월 24일에서 7월 28일까지 각 일자 2면의 경우, 총 63개의 2단 이상 크기의 기사 가운데

11) 『동아일보』는 1924년 4월 1일자부터 중부, 서북, 삼남 세 곳의 지역판을 발행하기 시작하였다. 시간대별 판갈이가 이루어지는 조석간제는 1925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나 불과 10일 만에 석간제로 통합되었으며 이후 1932년 11월 21일에 이르러 조석간제가 확립되게 된다. 참조: <http://www.donga.com/docs/donga80/ch01/01-03-01-p005.htm>

특호 활자 제목의 기사는 15개로 나타났으며 특호보다 큰 활자는 제목으로 쓰이지 않았다. 1935년 7월 24일에서 7월 28일까지의 『동아일보』 2면에서는 52개의 2단 이상 제목을 가진 기사가 게재되었고, 8배(倍)크기 활자 제목 기사는 13건, 특호 제목 기사는 17건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특호 이상의 큰 활자쓰임이 1930년대 와서 크게 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¹²⁾ 또한 제목의 공간 점유에 있어서는 앞서 <표 6>에서 나타난 것과 마찬가지로 1930년대의 경우 기사가 지면의 55.98%를 차지하고 있는 데 비해 제목의 비율이 44.02%에 이를 정도로 제목이 차지하는 공간이 상당히 늘어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뒤에서 논의할 선정주의적 보도의 한 형태로 파악될 수도 있을 것이다.

<표 9> 각 시대별 신문에 나타난 제목 글자수와 표준 편차¹³⁾

매체	제목수	제목 글자 평균	표준편차
독립신문	27	4.37	1.334
대한매일신보	139	5.30	1.278
1920년대 동아일보	118	8.00	3.300
1930년대 동아일보	110	11.58	5.501

(df=3, F=74.140, p=0.00)

다음으로 제목 길이를 살펴보면, <표 9>는 각 신문에 나타난 제목 글자수의 평균과 그 표준편차를 정리한 것이다. 네 신문의 제목 글자 수에 대한 변량분석(ANOVA) 결과 각 신문 간의 제목 글자 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근대신문들의 제목이 차츰 길어져왔다는 것을 확인할

12) 활자의 크기 구분은 한국편집기자회(1991, 212쪽)의 조건표와 실물크기로 확대한 지면을 비교해서 얻어진 결과다. 본문 글씨의 크기를 1배(倍)로 한 기준으로, 특호는 6.5배(倍)의 크기다.

13) 제목의 자수 비교에 있어서 1920년대와 1930년대 『동아일보』의 경우 기본적으로 주제목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꺾기 제목 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전한 진술문이 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하나의 의미 있는 문장이 되는 것만으로 하였다.

수 있으며, 이는 제목이 단순히 기사를 요약하거나 분리하던 기능에서 차츰 지면을 분할하고 기사의 초점을 상세히 제시하는 기능까지 하게 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 주목할 만한 점은 『독립신문』에서 나타났던 제목의 띄어쓰기가 『대한매일신보』 이후 사라졌다가 1930년대 『동아일보』에 와서 간헐적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띄어쓰기를 하지 않는 한문체 또는 일어체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으나 제작 과정의 어려움도 중요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여규병(2002, 63~65쪽)에 따르면 띄어쓰기를 위해 공목(空白)을 해당 단어 사이에 추가해 끼워 넣으면 연쇄적으로 뒤에 이어지는 기사문장을 몇 줄씩 건드려야 하기 때문에 오자를 잡는 것보다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더 힘들었다고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오늘날의 CTS 이전에 납활자를 사용하던 시기의 공통적인 어려움이었으며 특히 제목의 경우 1920년대 이후 나타난 제목의 글자수 맞추기에 방해가 되어 띄어쓰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생겨났을 것이다. 그러나 1930년대에 들어 이러한 띄어쓰기의 관행이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는데, 『동아일보』의 경우 그해 10월 29일에 발표될 예정이던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1933년 4월 1일부터 미리 적용해 띄어쓰기를 지면에 도입하였다.¹⁴⁾ 그러나 기사 본문과는 달리 제목에서는 여전히 간헐적으로만 띄어쓰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14) 1920년대까지는 통일된 한글 맞춤법이 없었으며 1930년 2월에 와서야 조선총독부가 ‘언문 철자법’을 공포하게 된다. 이후 조선어학회가 그해 12월 ‘한글 맞춤법 통일안’ 작성을 결의, 1933년 10월 29일 이를 발표하기로 하는데, 이에 『동아일보』는 활자를 모두 새로 주조해 맞춤법 통일안의 발표 이전인 1933년 4월 1일 창간 13주년을 기하여 새로운 철자법을 지면에서 전면 시행하게 된다. 『동아일보』의 이러한 발빠른 움직임은 당시 문자보급운동과 맞물린 『조선일보』와의 경쟁양상으로 볼 수 있으며, 이해령(2006, 574~587쪽)은 이를 조선어학회가 한글 사용에 있어서 신문사 등을 이용해 미디어 분야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편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2) 제목 내용 및 표현

본 연구에서는 제목의 내용 및 표현을 단순한 사실 전달이나 요약을 주로 하는 객관형과 편집자의 감정이나 생각 등 주관이 개입된 주관형으로 크게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시기별 분석결과를 취합하여 교차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 10>과 같이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표 10> 신문별 객관형과 주관형 제목 표현 비교

	독립신문	대한매일	1920년대 동아일보	1930년대 동아일보
객관형	15	107	114	93
주관형	12	32	4	17
합계	37	139	118	110

($\chi^2=34.406$, $df=3$, $p=0.000$)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독립신문』과 『대한매일신보』는 제목에서 편집진의 감정이나 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되는 주관형 제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두 신문 모두 사건보도나 정치 관련 기사에서 두드러지는데, 정치인의 잘못이나 부도덕한 사회현상을 꼬집는 기사에서 나타난다. 『독립신문』의 ‘하씨 억울’(1898년 10월 1일자), ‘감샤 혼일’(1898년 10월 3일자), ‘창피 막심’(1898년 10월 4일자), ‘황당혼 일’(1898년 10월 6일자) 등이 그러하다면 『대한매일신보』에서는 ‘송씨집이니각인가’, ‘무슴죄로잡히었나’(이상 1907년 7월 25일자), ‘종의량식은몰나’, ‘스리에당연한일’(1907년 7월 26일자), ‘얼골이쓰겁지아닌가’(1907년 7월 27일자), ‘병덩썩지수탐’(1907년 7월 28일자)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대한매일신보』의 제목은 특히 주관형의 경우 객관형보다 글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객관형 제목과 주관형 제목이 비슷하게 3~6자 내외로 나타났던 『독립신문』의 당시에 비해 제목을 통한 편집자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좀 더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이러한 주관적 표현의 경향은 1920년대 『동아일보』에서 급격하게 변화하는데, 1925년 7월 24일~7월 28일의 『동아일보』에서는 주관형 제목이 전체 사회기사 118건 가운데 단 4건(3.4%)에 지나지 않아 조사대상 『독립신문』의 44.4%, 『대한매일신보』의 27.5%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1930년대 『동아일보』에서는 주관형 제목이 다시 15.5%로 증가하는데, 이는 1930년대 민간지 경쟁의 상황과도 결부시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제목의 내용 면에서 1925년의 『동아일보』가 인명사고 보도에 있어서 건조한 어조를 보이면서 단순한 사실과 상황 전달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는 제목을 사용했다면 이 시기의 『동아일보』는 보다 더 감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제목 표현의 변화는 앞서 살펴본 제목의 크기와 지면에서의 비율 증가와 결부시켜볼 때 이 시기 민간지들의 선정적인 상업 경쟁이 편집을 통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표 11>은 객관형과 주관형 제목의 글자 수 평균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독립신문』과 1920년대 『동아일보』의 객관형 제목과 주관형 제목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대한매일신보』와 1930년대 『동아일보』의 제목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test 결과 『독립신문』

<표 11> 신문별 제목 관점에 따른 제목의 글자 수

매체	관점	건수	제목글자 평균	표준 편차	T-test	F-test	
						객관형	주관형
독립신문	객관형	15	4.53	1.767	p=0.447	p=0.000	p=0.000
	주관형	12	4.17	0.389			
대한매일	객관형	107	5.07	1.143	p=0.000		
	주관형	32	6.09	1.399			
1920년대 동아일보	객관형	114	7.88	3.118	p=0.344		
	주관형	4	11.50	6.454			
1930년대 동아일보	객관형	93	10.60	4.787	p=0.000		
	주관형	17	16.94	6.189			

이래 객관형과 주관형 제목의 길이는 지속적으로 길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특징적인 것은 1930년대 『동아일보』의 주관형 제목이 평균 약 17자에 이를 정도로 길어지고 있는 점이다. 이는 보다 주목을 끌 만한 기사를 단순 요약하기보다 자세히 설명하고 강조하려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길어진 제목과 커진 제목 활자, 그리고 주관형 제목의 증가 등은 당시 언론의 상업주의적 경향에서 나타나는 선정적 보도의 한 측면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¹⁵⁾ 1930년대의 언론 상황에 대해 박용규(1995, 43쪽)는 “대규모 자본에 의해 민간지들의 기업화가 정착되고 대중지적 논조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업주의적 경향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와 같은 민간지들이 일제의 감시와 견제가 심한 민족의 문제에 관한 보도보다는 대중적이고 흥미 본위의 문예물이나 선정적 보도에 더 비중을 두면서 심화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정진석(2001, 30쪽) 또한 1930년대의 신문이 이러한 상품화를 추구하면서 무의식한 민중의 호기심을 이끌기 위하여 저급한 흥미위주의 보도에 치중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재천(1984, 43쪽)은 선정주의에 대해 “매스프레스와 더불어 등장한 저널리즘의 파행적 수법으로 보도대상의 선정과 기사작성 및 지면구성에 있어 오로지 그 기준을 독자의 흥미를 부추기는 데 두고 이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저널리즘의 한 유형이다”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박허식(1986, 102~105쪽)은 이러한 신문의 선정주의가 주제-문장 표현의 자극성, 시각적 자극성, 표제의 저속성 3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들은 다양한 사회변동요인들을 복합적인 영향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큰

15) 1920년대와 1930년대 미국 신문의 변화를 조사한 네론과 반허스트(Nerone & Barnhurst, 1995, pp.30~32)는 기술적인 발달과 경쟁 이외에 지면 디자인에 있어서 예술적인 스타일의 반영, 그리고 기사에 대한 강조와 위계 표현이 당시 제목의 활자 변화에서 주요한 요인임을 지적하고 있다. 이는 당시 『동아일보』의 제목에 나타난 변화에도 적용될 수 있는 설명일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요인들의 배경으로 당시 언론의 ‘상업주의’와 그에 따른 ‘선정성’을 주목하였다.

상관관계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로 상업주의를 지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 민간지들의 상업적 경쟁은 선정주의적 양태를 낳았고, 이는 기사 보도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신문 편집, 특히 제목에도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신문 제목에 나타나는 선정성에 대해 김정림(2005)은 “사건의 중요도에 걸맞지 않게 큰 제목을 사용하는 것”과 “제목에 사용되는 어휘도 감각적인 느낌만 주는 형용사와 부사로 가득 차 있다”고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이상철(1986)도 선정적 저널리즘의 특징으로 “불필요하게 큰 헤드라인과 활자”를 첫 번째로 꼽고 있다.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1920년대의 『동아일보』에 비해 1930년대의 『동아일보』는 사회기사 보도를 커다란 활자로 장식하고 있는데다 위에서 열거한 ‘激浪에싸인…’, ‘묵숨바친 老翁’ 과 같은 문구를 동원, 인명의 죽음을 흥밋거리로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제목의 선정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신문의 상품화가 진전되면서 선정주의적 보도 양상이 나타났으며, 이는 기사 제목에서의 변화를 일으킨 주요한 배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4. 결론

『독립신문』 이래 1930년대의 『동아일보』까지 제목은 그 형태나 내용 면에서 많은 변화를 보여 주었다. 『독립신문』의 잡보는 처음에 제목을 달지 않다가 1898년 7월 2일자부터 제목을 달기 시작했는데, 이 당시의 제목은 3~6자 내외의 간결한 문구였다. 1900년대 『대한매일신보』에 이르러 제목은 그 형식 상에서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으며 그 비율이 『독립신문』에 비해 줄어들기는 하였지만 편집진의 시각을 제목에 꾸준히 개입시키고 있다.

1920년대 『동아일보』에서는 2단 주제목에 두 줄 이상의 부제목을 거느리는 정형화된 제목 스타일을 발견할 수 있다. 이 시기의 제목 어조는 매우 건조하나 상세한 부제목들을 통해 제목만으로 기사들을 대략 일별할 수 있는

오늘날 신문 제목의 요약 기능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제목의 단수와 서체 크기가 엇비슷하여 오늘날과 같은 기사 경중 기능의 기능은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현에 있어서 특징적인 점은 사회기사의 경우 주제목을 거의 한자로 쓰고 있는 반면 부제목은 거의 한글로 쓰고 있는 점인데, 이는 한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도 독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겠다.

1930년대의 『동아일보』는 이전의 『동아일보』에 비해 더 커진 활자, 더 커진 제목 면적, 주관이 개입된 제목 문장을 보여주고 있다. 형태뿐만 아니라 제목의 내용에 있어서도 본질과는 크게 상관없는 주변적인 요소들을 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독자들의 흥미를 자극하려는 시도가 발견되는데, 이것은 당시 민간지들의 상업적 경쟁양상과 결부시켜 볼 때, 선정주의적 보도양태가 편집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보면, 전근대적 커뮤니케이션이 지배적이던 조선조 말에 근대적 대중매체인 신문이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그 형식에 어느 정도 구어적 커뮤니케이션의 요소가 존재하였음을 『독립신문』의 제목 생성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으며, 『대한매일신보』 이후 저널리즘이 정착하고 발전해나가는 과정에서 제목은 점점 오늘날의 기사 제목과 같은 기능을 하는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즉 개화기에서 『대한매일신보』에 이르는 시기는 신문의 제목이 생성 및 정착된 과정으로서, 이를 근대신문 편집에 있어서 제목의 ‘발아기’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일제 강점기의 신문 제목은 크기와 체제 등 형태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객관적 표현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전 시기와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근대신문 제목의 생성과 정착, 발전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으리라 여겨진다. 기술적으로는 인쇄 및 조판 등의 당시 신문제작 환경 발달이 제목의 외형적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개화기 민중을 위한 계몽 수단에서 정보 제공을 위한 매체로의 신문에 대한 인식 변화 등은 제목에 있어서 객관적 표현을 증대시키고 뉴스 가치 표현과 기사 일별 기능

등을 갖게 한 사회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또한 일제 강점기 신문에 대한 감시 및 견제와 민간지들의 경쟁도 제목에서 가급적 주관을 배제시키거나 선정적인 표현을 증가시킨 시대적 요인으로 생각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며 제목의 형성과 발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이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으로 『독립신문』으로부터 1930년대에 이르기까지의 근대신문 제목을 형태와 표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변화의 양상을 고찰해보았다. 이는 기사내용에 대한 연구와 함께 각 시기의 신문 안팎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탕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각 신문의 중간 시기만을 대상으로 분석이 이루어져 전체시기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본 연구의 한계로 여겨진다. 마지막으로 아쉬운 점은 우리 근대신문의 편집과 관련한 자료가 많지 않아 편집의 변화를 둘러싼 당시의 신문 내·외적 환경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점인데, 앞으로도 우리 근대신문의 편집 및 제작과 관련한 많은 자료탐색과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Ⅰ 참고문헌

- 강준만 (2000). 『권력변환』. 서울: 인물과 사상사.
- 김민남 외 (1993). 『새로 쓰는 한국언론사』. 서울: 아침.
- 김민환 (1996). 『한국언론사』. 서울: 사회비평사.
- 김정림 (2005). 『신문에 나타난 ‘변형제목’의 유형과 특성에 관한 연구: 조선·중앙한겨레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 석사학위논문.
- 김지용 (1996). 『현장신문론』. 서울: 쟁기.
- 김희진 (1997). 『한국신문의 문체』. 서울: 국립국어연구원.
- 동아일보 (1975). 『東亞日報社史』. 서울: 동아일보사.
- 박용규 (1995). 일제하의 언론 현실에 대한 인식과 비판. 『언론과사회』, 8권, 39~83.
- 박허식 (1986). 『新聞의 煽情主義와 社會變動變因간의 相關關係에 關한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갑수·이주행·이석주 (1990). 『신문기사의 문제』.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 여규병 (2002). 신문의 띄어쓰기. 『새국어생활』, 제12권 1호, 63~71.
- 오선화 (1987). 『大韓每日申報 國文版에 대한 考察』.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재천 (1984). 한국신문과 센세이셔널리즘. 『언론중재』, 제10권, 39~46.
- 이상우·류창하 (1993). 『현대신문 제작론』. 서울: 나남.
- 이상철 (1986). 미국언론발달에 관한 분석적 연구. 『언론연구』, 제4권 1호, 75~91.
- 이재경 外 (2001). 한국 신문의 역피라미드형 기사 도입과 정착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46권 1호, 413~442.
- 이재경 (1998). 『기사작성의 기초』. 서울: 나무와 숲.
- 이행원 (1988). 『取材報道의 實際』. 서울: 나남.
- 이혜령 (2006). 한글운동과 근대미디어. 박지향(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1』. 서울: 책세상.
- 임근수 (1984). 『言論과 歷史』. 서울: 정음사.
- 임영호 (2005). 『신문원론』. 서울: 한나래.
- 정대철 (1996). 日帝下 朝鮮·東亞日報의 신문론. 『사회과학논총』, 제15권, 425~472.
- 정태철 (1995). 신문환경의 변화에 따른 신문제목의 문제점 연구. 『경성대학교 논문집』, 제16권 1호, 247~275쪽.
- 정진석 (1990). 『한국언론사』. 서울: 나남.
- _____ (2001). 한국언론 100년, 그 역사적 성격. 위암장지연선생기념사업회 (편). 『한국근대언론의 재조명』 (7~37쪽).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조은영 (2003). 『한국신문 1면 특성의 변화 연구: 1921~2001년의 조선일보와 동아 일보를 중심으로』. 이화여대 석사학위논문.
- 차배근 外 (2001). 『우리신문 100년』. 서울: 현암사.
- 채 백 (1995). 《독립신문》 잡보의 내용 및 보도방식에 관한 분석연구. 『한국언론학보』, 제35권 1호, 5~36.
- _____ (2004). 《대한매일신보》잡보의 내용분석 연구. 한국언론사 연구회 (편). 『대한매일신보 연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최옥자 (1973). 한글 신문의 紙面構成에 관한 연구. 『저널리즘연구』, 제3호, 71~170.
- 최진우 (1973). 新聞表題와 news性. 『한국신문학보』, 제6권, 130~146.
- _____ (1983). 한국新聞 News記事文의 變遷研究. 『한국신문학보』, 제16권, 33~38.
- 추광영·강명구 (1989). 舊韓末 韓國新聞에 있어 뉴스의 성격에 관한 研究. 『한국언론

학보』, 제24권, 29~80.

한국편집기자회 (1972). 『신문편집』. 서울: 집문당.

_____ (1991). 『신문편집』. 서울: 한국편집기자회.

_____ (2001). 『신문편집』. 서울: 한국편집기자협회.

Hyde, G. M. (1941). *Newspaper handbook*. New York: D. Appleton-Century.

Neron, J. & Barnhurst, K. (1995). Visual Mapping and Clutural Authority: Design Changes in U.S. Newspapers, 1920~1940. *Journal of Communication*, 45(2), 9~43.

Williams, R. (1995). *Television: Technology and Cultural Form*. 채 백 (번역). 『세계 언론사』 (261~274쪽). 서울: 한나래(원저 출판연도 1975).

(투고일자: 2008.05.30, 수정일자: 2008.07.10, 게재확정일자: 2008.07.21)

부록

〈제목 목록 1〉 『독립신문』(1898년 10월 1일자~1898년 10월 6일자)의 제목

객관형 - 정부 주본, 상회 상소, 통상회, 협회 증분(이상 1898년 10월 1일자),
비답 상회 상소, 무너 전갈, 경상어스 횡적(이상 1898년 10월 3일자),
경상 어스 횡적 저호 연속(이상 1898년 10월 4일자), 도약소 상소,
감리 횡적, 룬선 발정(이상 1898년 10월 5일자), 정부 답장, 의관회,
익명서, 협회 기회(이상 1898년 10월 6일자).

주관형 - 외교 왕복, 하씨 억울(이상 1898년 10월 1일자), 대감 략명, 감사 혼일(이
상 1898년 10월 3일자), 적실흔 소문, 창피 막심, 경무 환임, 빙공 영스
(이상 1898년 10월 4일자), 신문 효험, 장씨 세력(이상 1898년 10월
5일자), 상씨는 미신, 황당흔 일(이상 1898년 10월 6일자).

〈제목 목록 2〉 『대한매일신보』(1907년 7월 24일자~1907년 7월 28일자)의 제목

객관형 - 동궐을슈리, 빅성이돌질하다, 황데칭호를기뵈, 년호기명, 년호를곳치
는절차, 기시히기를효유, 각대신불공, 츠관이쳐판, 관찰의보고, 관찰
이상경, 군슈스직, 삼씨심문, 탁지도사, 진고개로피란, 고문관도이스,
미인피란, 일병교태, 통감부에서무, 상소못호고죽어, 참령이통곡, 문
부를다시도사, 병당이도적, 강빅성의증분, 병당이보슈하여, 결스회,
학교를부슈다, 공쥬인민의소요, 비소에파슈, 항구철시, 목스즈페, 무
근지설(이상 1907년 7월 24일자), 이어히실의론, 폐데문데, 제씨의벼
술, 도감데도, 간도에관인, 송씨집에스진, 한성판운, 두곤더로괴관, 련
일입번, 각도에훈칙, 민요로잡히다, 군함도박, 군대입성, 헌병입성, 잡
헌일업서, 삼씨청원, 셔또인민울분, 인천이평안(이상 1907년 7월 25일

자), 한일외신협약, 림동씨귀국, 경북궁으로이어, 위로롤아니밧다, 외스국폐지, 도감설시, 지정을덩리, 인지발행, 니대신신임, 문부를가져가, 관인을데두다, 별쳐분, 학교집슈리, 디방정형, 풍설이라도조심(이상 1907년 7월 26일자), 존호진하, 집을니샤흐시다, 녀려업셔, 군슈주분, 일인관리, 림동씨귀국, 군슈류런, 주품흐는시간, 니각을옴기다, 니부의효유, 신병으로폐무, 강물이뒤집혀, 세무시험, 북도군수의불치, 청원이무효, 옥송스썩지, 문부수탐, 민씨포박, 스가에서공스, 부인의즈선, 한국을웨함협, 디방정형, 유상이통분, 인장이회환, 군수청원, 탐장을사실(이상 1907년 7월 27일자), 밀스의선언, 량씨전임, 량씨신병, 군슈포편, 일병출슈, 리씨포박리허, 니각통첩, 병당을집류, 쳐쳐쇼요, 충남한지, 경무청고시, 밀스의동정, 병당으로진압, 무죄흐면방송, 통관의게하디, 학비금쥬쳐, 정오(이상 1907년 7월 28일자).

주관형 - 관보도모르나, 한씨가혼났네, 곤난을버셔나, 삼기포성, 경무수도차함 잇나, 려향의론이근리함, 아모것도몰내(이상 1907년 7월 24일자), 례절을헝치못하다, 송씨집이니각인가, 손희금을뉘게밧노, 제귀에놀났네, 경찰잘흐다, 무슴죄로잡히엇나, 울면쓸데잇나, 의기양양, 쳐가덕보앗네, 로파가무슴죄(이상 1907년 7월 25일자), 종의량식은몰나, 우물에웨싸져, 칭병인가, 스리에당연한일, 무슴일노잡혔나, 부러흐일인가(이상 1907년 7월 26일자), 얼골이뜨겁지아닌가, 치료가헛일, 씬을씨엇나, 일병이또오네, 괴상흐일, 미우편흐다(1907년 7월 27일자), 원넘장스, 격식을몰나, 병당썩지수탐(이상 1907년 7월 28일자).

〈제목 목록 3〉 『동아일보』(1925년 7월 24일자~1925년 7월 28일자)의 제목

객관형 - 東幕禮拜堂天井崩落, 夜半에慘禍再發, 重傷者生命危篤, 原因은棟樑腐敗, 本社救護班出動, 婦女五名溺死, 各線全部開通, 死亡과去處不明五百卅七名, 退去를當한路上의罹災民, 宣川에는 旱災騷動, 장마로생긴발병, 二百五十餘

名, 電信電話復舊, 流失家屋三百餘, 宣寧堤防期成, 優美館員動搖, 漢江航行困難, 八洞住民陳情, 安城洪水, 仁川送電回復, 明川에武裝團, 人道橋開通, 驛前의닝마團, 處女의婚需品(이상 1924년 7월 24일자), 減免稅額은四十萬圓, 孝昌圓內의假家/昨夕까지全部完成, 選擇收容, 期限은二個月, 電線完修處, 浸水地郵便所, 郵便輸送은/自動車로連結, 全國鐵道開通, 永登浦에도假家, 龍山染病患者, 淸州堤防期成/當局에陳情, 水道給水는/午前六時부터十時, 平壤地方旱害, 忠北水災狀況, 滿目淒然한弊村/形骸만僅存한데群犬이吠泣, 洪水의過去記錄, 松坡里全滅狀態, 漣川地方被害, 咸安水害後報, 溺死者四名發見, 延白地方水害, 鐵橋工事狀況, 鐵道乘客溺死, 破屋前水災民, 人煙杜絕된새말, 形體保存한汝栗, 宣寧水災詳報, 서울青年救濟, 女基青年活動, 海員共濟活動, 淸州鳥致完間(이상 1925년 7월 25일자), 各地水害詳報, 水災의農作/卅萬石減少, 橫領으로嚴重處罰, 今明間復舊, 本社에서一時收容, 宗親青年活動, 要救護子, 遭難漁夫護送, 水災後大火災, 兩處에서百六十名, 趙氏繼續義損, 少場에漂流屍, 府外에서府內로/移住民漸增, 各洞町戶日變動, 鐵橋築堤完成, 各社直接救濟는/작이십오일까지로중지, 初有의女子商業, 災後의衛生과/臨時清潔, 昌原婦人特志, 尙洞禮拜堂에/收容한八十名, 漢江里災民과/유지의특지(이상 1925년 7월 26일자), 半裸體의罹災民慘狀/필목千二百疋提供, 區域은四郡沿岸, 水災民 救護所를/郡警이強制撤去, 漢江築堤場에서/千餘名大格鬪, 災民救金募集, 朝鮮饑饉救濟會/南道地方에活動, 兩氏五萬圓寄付, 工業會講演中止, 人妻와携手逃走, 東萊校盟休解決, 順化院患者는脫走, 漢江에溺死頻勺, 暮煙초차絶影되고/頽屋上에는新作路, 街路는何處壽, 生男即時避難, 夫婦死別한銀沓, 百餘勞動者/警察에殺到, 各專門學生 全國巡廻(이상 1925년 7월 27일자), 西道旱災繼續, 衣類와藥品等供給, 龍山管内罹災民/三萬二千五百名, 濟原普生盟休, 京釜線은今日開通, 洗浦事件公判, 吡 락收容者/一千二百餘名, 洞內로내기쓸리고-/집터에는밭을갈어, 자취나잇스면/폐허라고나하겠지만, 至極한母子之精, 처음보는變怪, 松林間의草幕, 流失物中에長銃, 自動電話增設, 赤旗團豫審終結, 最高九十三度, 青總委員/災地로派遣, 咸安侵水/七千町步, 信川郡守事件으로/知事에陳情, 水災

의救濟(이상 1935년 7월 28일자).

주관형 - 當時를말하는/곳곳에쓰러진집(1925년 7월 24일자), 極慘한韓英愚(1925년 7월 25일자), '救濟所를 또 解散/...처처에 나타나는 무도한 압박', '檢事求刑單六年'(1925년 7월 28일자).

〈제목 목록 4〉 『동아일보』(1935년 7월 24일자~1935년 7월 28일자)의 제목

객관형 - 獨浪과苦鬪・本社救護班徹夜-羸島는宛然水國, 麻浦災民中엔/胃腸患者가發生, 隱身할곳도設備/應急食事提供, 災民一一歷訪/救急藥品配給, 清涼里平野泥海化, 仁川被害, 兩線겨우開通, 漢江漸次減水, 各地被害-京畿道/江原道, 優勢한颱風接近?, 災民感激, 耕作地強制使用코/代金과損害를不給, 百餘倍地人에게/撤去를強要, 三十時間勞動에/賃金十五錢, 金塊萬餘圓/북행렬차안에, 熱誠者同盟/三名은控訴, 慶南警察部出動/十數青年을檢舉, 居昌安義等地/三日間停電, 霖雨繼續으로/感氣가流行, 電柱建立으로/農作被害莫大, 咸興府內의豚飼育場/府民保健上大問題, 漁船顛覆漂流, 幼虎를生擒, 赤痢猖獗로/死亡十餘名, 三少年共謀로/放火하고竊盜, 阿片密輸者/第二次送局, 貧民戶稅代納, 公金橫領고自敍(이상 1935년 7월 24일자), 水位는平時대로/災民은各安其所, 雨後에判明된各地水害-信川에도水難/侵水五百戶, 三百戶全減?, 通信網恢復, 昨日最高八十九度, 建物取締規定立案, 釀酒탕크/四名重輕傷, 安州普光校倒壤, 赤地三郡엔/對策을要求, 江華東洛川/堤防一部決潰, 各道衛生課長/會議를開催, 衛生·防火·體裁置重한/建物取締規定立案, 放火團判決(이상 1935년 7월 25일자), 霖後酷暑로病魔가脅威-傳染病魔의暴威/再昨日十七名發病, 水災中言爭과/매맞고突然絶命, 作業中墜落/코가떨어져, 거스름橫領逃走, 龍江羅北에反滿軍/住民四十名殺害, 警察隊가叛亂, 通開獄門하고/五十名을解放, 平壤牧丹臺/慶州佛國寺/양지에출장조사한다음/名勝地로指定할터, 낮잠자다逢變, 鐵橋에서轢死, 家屋倒壤九戶, 東萊上水道/八月初엔給水, 慶州南明校/昇格을運動, 設立無效로/檢局에서取調, 虎子를寄贈, 裡里

에強盜, 長土窮民에게/救濟粟配給, 平壤救濟院에/八圓寄附, 宣川店員慰安(이상 1935년 7월 26일자), 陣容整齊된五大隊/明日부터一齊出發, 五千圓脅迫文은/翁婿間不和의謀陷所爲, 南京軍官校生/八名에體刑判決, 牡丹江市에/怪疾大猖獗, 貧女投身, 臨床二年이라야/醫學博士된다, 水害로不通頻頻한/京畿線路補強工作, 思想專門巡查를/農村에配置, 少年軍指導研究法, 反滿軍討伐에/飛行隊도出動, 暴雨一過後드러난慘跡-堤防五個所破壞/侵水十萬餘坪, 坡州被害百萬圓?, 坡州一帶에는/傳染病猖獗, 苔灘에도水難, 慈城江汎濫/少婦가溺死, 青年一名溺死, 兄山江에선/學生이溺死, 華川增水六米, 父子觸死, 上關堤防修築陳情(이상 1935년 7월 27일자), 脫獄한長期囚人/昨夕長湍에서逮捕, 貨物列車잡아타고/짐빨리실이라고號令, 屍體실은船片/淸津海에漂流, 暴雨로倒家, 延吉縣에共產黨出現, 朝鮮의氣壓은雨期에/今後로는驟雨가중중온다, 咸北銀銅輸出/補助金決定, 龍井에拳銃든二名/一夜五處輪襲, 八仙洞反滿軍/西南方으로退却, 北滿에黑死病, 死傷者六名/流壤家屋百十戶, 全南北未移秧畝/二萬町步代用作, 飲毒한女子(이상 1935년 7월 28일자).

주관형 - 乙丑年感舊之懷로/災民에게더운밥한끼, 感激할愛隣心, 擴張되는大平壤/趙村美林西浦가 平壤과連結, 病死牛肉販賣한/獸肉商檢舉(이상 1935년 7월 24일자), 富豪·名望家등/七名을突然收監/平壤社會에 일대 썬세이슌, 더위를이기는“물노리”/女子水泳講習會(이상 1935년 7월 25일자) 昨日最高九十度八六/여름장사는빙글빙글, 주검의直前에/發見되는 人間愛, 激浪에싸인少年/救出하다溺死, 江中の幼兒건지다/목숨바친老翁, 兄弟가合力하여/四從叔打殺/아이들쌈에 어른이 죽어/犯人은報恩署에被捉, 三十年동안 닦은터우에/더욱빛날大邱信明校(이상 1935년 7월 26일자), 鐵橋改修한다고堤防헐어/七萬餘坪에濁浪襲來/京畿道廳의處事를放任하는當局, 三十年만에/再生의恩人을맞나, (이상 1935년 7월 27일자), 벌어기는 우리겨레/二千萬이훤신넘어, 남양에 태풍!/東日本노리고北上, 貧困學童教育으로/十年을하로같이(이상 1935년 7월 28일자).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Article Titles in the Beginning Period of Korean Newspapers

Focused on The Independent, The Korea Daily News and The Dong-A Ilbo

Chang-Shik Choi

Graduate student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l Univ.)

Chae Baek

Professor

(Dept. of communication, Pusan Nat'l Univ.)

This research is a comparative analysis of article titles in the beginning period of Korean newspapers. The Independent, The Korea Daily News and The Dong-A Ilbo were chosen for this research because each was the representative newspaper of 1890s, 1900s and 1920s~1930s respectively. In result, The Independent's article titles had been appeared on nearly 2 years after its first issue. Before the appearance of titles, The Independent had divided articles only with section names. In 1900s, The Korean Daily News's article titles was longer than those of The independent. And in 1910, the titles of The Korean Daily News had been placed on separated line to divide articles clearly. But during these period, typographical development of titles was not shown and the width of title was remained in one column. This means, the function of title in these periods was not to represent the value of article but only to divide the articles. In 1920s, The Dong-A Ilbo had used big size types and multi-column edit and those changes enabled newspaper to introduce the concept of layout. During the decade of 1930s, The Dong-A Ilbo's titles had occupied more space on newspaper than earlier period. This could be explained from the perspective of sensationalism of commercial newspaper and a tendency of putting more weight on titles. On the dimension of expression, proportions of subjective titles in The Independent, The Korea Daily News were 44.4% and 28.3% each, but the

subjective titles of The Dong-A Ilbo in 1920s' were only 4.2%. This decrease can be explained by the settlement of objective journalism in Korean newspapers during 1920s~1930s.

Key words: article title, The Independent, The Korea Daily News, The Dong-A Ilbo, newspaper editing